

새 해 를 맞 으 며

대한광학(공) 주식회사의무실 김 영 숙

모든 사람들의 술렁임 속에서 올해는 조용히 저물어 갔고 벽찬 가슴으로 병인년의 아침을 맞는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묵은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계획하며 새로운 각오로 힘찬 시작을 하리라 다짐해 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출근길의 얼굴들 모두 지난해 동안 따뜻한 마음들로 곁에 머물러 훈훈함을 느끼게 해줬던 사람들이다. 아직도 추위가 느껴지던 3월, 처음 이곳 의무실과 인연을 맺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친구가 되기까지 때론 즐겁고 때론 어려웠던 여러가지 일들로 지난 85년 한해는 내게 많은 의미를 안겨 주었다. 그러니까 산업장 간호원으로선 이제 돌을 맞을 차비를 하고 있는 햇병아리인 셈이다. 의무실이란 조그만 팻말 조차도 너무 생소하고 오랜동안의 임상경험에도 불구하고 웬지 두려움이 앞서고 온종일을 긴장속에서 보내야 했다. 까마득히 먼 기억속에 묻어둔 보건간호의 현노트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산업보건이나 보건관리에 관한 책자들을 닦치는 대로 읽어대며 700명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보건업무를 수행해야 함은 얼마나 큰 짐처럼 무겁게만 느껴던지 행여 이름뿐인 보건업무 담당자는 되지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모든게 조심스러웠다. 생소하기만한 각 부서

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서별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상태를 Check 하며 기계를 만지며 일어나는 작은 외상을 줄이기 위해 각 부서장들과 안전관리자와 의논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환자들을 대하여 실로 놀라운 것은 의무실을 찾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신문이나 TV의 선전문구 등으로 익힌 의학상식으로 너무 많은 약을 오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심지어는 의사의 진찰과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질환들조차도 자신들이 진단하고 처방하여 약을 먹고있었고 어떠한 종류의 아픔도 약으로 해결하려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무척 당황해야 했다. 광고홍수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로서 과연 그들만의 잘못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지만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올바른 건강상식을 갖도록 설명해주며 또 작은상처라도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살핀다. 미력하나마 누군가를 도울수 있고 또 그들에게서 밝은모습으로 고마움을 전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 한겨울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식시간을 이용해 축구 족구등을 즐기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젊고 건강하다는 것을 누구에게든 감사하고 싶어진다.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질뚝거리면서도 넓은 드럼통 골문을 향

해 사력을 다해 뛰는 모습은 환경을 극복하며 일생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느낄 수 있고 “다음 부터는 치료해주지 않겠다.” 라는 싫지 않은 편지를 주고 받을 만큼 이제 그들에게서 여유를 배웠고 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구로공단에 위치한 광학계통의 업체로 대부분이 남자 근로자들이고 그래선지 삭막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의무실 앞 배란다에 작은 화단을 꾸미고 나팔꽃이며 분꽃 사루비아 등의 여러가지 꽃씨를 뿌리고 그것들이 잘 자라 주어 아담한 화원을 꾸렸고, 짧은 여름날 날이 저무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의무실을 찾아온 이들과 함께 살며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몇 번씩이나 뒷머리를 긁적이면서도 차마 꺼내기 쑥스럽고 거북했던 가슴속의 얘기들을 풀어가며 우린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른다. 하얀까운이 주는 차가움과 이질감을 없애주기 위해 많이 얘기하고 친구처럼 때로는 동생, 누나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자 했지만 그동안 개인적인 일들로 의무실을 찾은 이들에게 소홀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일들이 없지않음을 스스로 반성해본다. 처음 근로자들과의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 모든 이들의 이름과 소속부서를 외우

기 시작해 지금은 가장 많은 종업원을 알고있노라고 자부하지만 몇 번씩 들어도 쉽게 기억할 수 없는 이름들 때문에 “아직도 몰라요”라며 서운해 하는 모습을 볼때면 벌써 느슨해진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본다. 그저 먼세계로만 느껴졌던 구로공단의 24시

이제 직접 이곳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며 진실로 살아야 함을 느끼며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임을 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자신들이 속해있는 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몸이 불편하고 쉬고 싶지만 생산에 지장이 있다”며 잔업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어느 아줌마의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탄을 해야만 했다. 새해의 소망은 참으로 열심히 살고있는 이들에게 언제까지나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여건이나 아지길 바라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산업보전이 더욱 발전하여 근로자와 그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더 밝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이다.

◇ 마음이 머무는 길목에서 ② ◇

마 당 바 우 를 생 각 하 며

내 고향마을의 앞고개 마루턱에는 길옆으로 명석 두어자리 펄 만큼만한, 마당바우 또는 서왕바우(성황바위)라는 검은 너럭바위가 있다.

옛날옛적에, 용이 되다만 이무기란 놈이 이 마을로 숨어들려고 고개를 넘을때 하늘님이 벼락을 내리쳐서 이 바윗돌 밑에다 가두어 두었다고 하는 전설이 말하듯이, 이 바위는 언제부터인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마을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생명을 지녀왔다.

전에는 이 바위 위에 서낭각(성황각)이 한 채 날렵하게 서 있었고 서낭각 뒷쪽으로는 산골태기가 미어지도록 진달래가 흐드러져서, 매년 사월초파일께는 온 동네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서낭각